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신설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등 간호정책 전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집중 수행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2월 1일 발표했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됐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호정책 TF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에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간호정책 TF에서는 간호정책을 총괄한다. 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 이행과제 추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다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첫째,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수가 지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고,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1월에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사분기에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사업을 새로 실시하며,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259명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8개 간호대학에 총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3년 이상)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한다.

셋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주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2월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 및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00여개 병원에 배포했다.

올해 1사분기에는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할 예정이다.

넷째,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와 함께 간호사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유튜브 브 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공모전을 통해 우수 동영상과 표어(슬로건)를 발굴했다.

버스 외부 및 버스정류장에 간호사 인식개선 광고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전국 병원에 포스터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확산된 의료자원정책과정은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협, 간호정책 TF 설치 '환영' 성명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 부서가 폐지된 지 45년 만에 '간호정책 TF'가 설치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2월 1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0년에 폐지되고, 1975년 의정과 간호계로 축소된 이후 45년 만에 '간호정책 TF'가 설치됨으로써 간호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질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간호정책은 양적 측면만을 고려한 점령발이 정책이었다"며 "그러나 '간호정책 TF' 설치에 곁들여와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양상 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사 수급계획부터 간호교육 질 관리, 간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 부서 폐지 45년 만에 TF 설치돼

숙련된 간호사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질적인 간호정책 추진 토대 마련

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발전, 그리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질적인 간호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정책 TF'의 설치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간호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며 "특히 보건복지부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간호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점에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정책 TF' 설치하는 간호정책을 총괄하면서, 시범사업을 포함해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간호인력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간호전담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정책 TF'가 추후 간호정책과로 발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간호사 교육, 근무환경 개선, 인력 수급계획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인식개선 포스터 4종 제작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와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하나로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포스터 4종을 제작했다.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간호사에 대한 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포스터는 20대, 30대, 40대, 50대를 대표하는 현직 간호사를 모델로 제작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주제 아래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전문직 간호사들의 일과 보람을 담은 글을 넣었다.

50대 간호사는 의료공간에선 제 부모, 제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환자를 내 가족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저에게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께 존중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40대 간호사는 총각을 다루는 응급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30대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돕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간호로 환자를 24시간 지킵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20대 간호사는 환자가 회복되는 걸 보는 것 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저에게 간호는 직업 그 이상으로 제 삶의 보람입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포스터 4종은 전국 의료기관 간호부서에 배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버스정류장 쉼터 및 버스 차량 외부에 광고로 포스터가 게재됐다. 버스정류장 광고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지역 31곳에 게재됐다. 버스 외부 광고는 경기도 버스 4개 노선 총 12대, 세종시 버스 1개 노선 총 3대에 게재됐다.

한편 포스터 제작에 앞서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와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으로 영상물 '제 직업은 아가씨가 아닙니다'를 2018년 12월 제작했다. 간호사를 부르는 호칭 문제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영상물은 SBS 뉴스가 SNS를 통해 제공하는 뉴미디어 브랜드인 '스브스뉴스'에 실렸으며, 전체 영상은 스프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SBS 텔레비전 뉴스 모닝와이드를 통해서도 보도됐다.

또한 '간호사 인식개선 UCC·슬로건 공모전'을 2018년 10월 개최했다. 공모전은 '내 마음속 간호사를 말하다' 주제로 진행됐다. 간호사 인식개선과 관련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사례를 비롯해 긍지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접수받았다.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